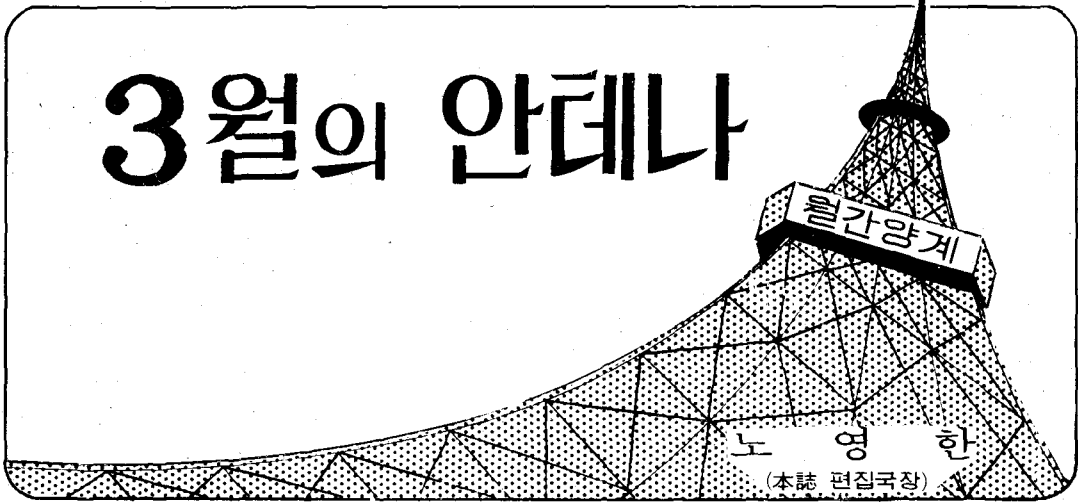


3월의 안테나



서울시 전역이 도계품으로 유통된다

서울시는 79. 1. 16일, 중구, 종로구 및 일부 아파트지역에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지역으로 고시한 후 (소위 도계유통지역)이던 80. 4. 1 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도계 유통은 76년도에 한번 시도하였으나 당시 모든 여건이 구비하지 않아 시행을 유보하여 왔다가 법을 일부 개정 보완하여 79년 다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도계유통에 대하여는 그동안 본지에 여러차례 보도 한 바 있다. 도계품의 유통은 위생적인 면이나 생계로 유통될 경우의 감량등 제반 문제를 떠

나서도 생산자 입장에서든 생계로 거래는 것 보다 도계로 유통되는 것이 거래조건이 유리하여 지기 때문에 원하여 왔었다.

그러함에도 4월 1일 부터 서울시 일원에 도계유통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최근 부로일러 초생추 입식을 조절하는등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76년과 비교하여 간이도계장이 몇개 더 늘었다고는 하나 오히려 일반도계장의 수는 줄고 아직도 도계능력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76년과 비교하여 여건이 크게 개선된점이 없다는데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 우리가 기대하는 간이도계장도 상업지

도계장 현황

지역별	79. 1		현재 (79. 12. 31)		비 고
	도계장수	1일처리능력	도계장수	1일처리능력	
서울	2	30,000	7	40,000	일반 2 간이 5
경기	3	40,000	9	55,000	
기타	-		3	12,000	강원 충남 북
계	5	70,000	19	107,000	

※ 1일 서울시 소비추정 15만수

역에만 설치 할수있어 대부분의 시장이 상업 지역아닌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간이도계장 증설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범시행만을 강행할 경우 또다시 76년과 같이 피해는 생산자가 보게 된다.

이번의 닭고기 유통개선은 이제 어떻게 든 당초 우리가 바라는대로 성공을 하여야 하겠기에 76년의 전철을 밝지 않도록 다음 몇가지를 정부에서 시행하여 주기를 바란다.

첫째 지금까지 생계유통을 담당하였던 중간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과거 76년과는 크게 변하였으므로 서울주변의 경기도 지역에 간이도계장을 허가하여주고 서울시내에도 상업지역이 아닌 상가지역에도 간이도계장 허가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

간이도계장은 앞으로 2년밖에 시한이 남지 않아 그 수가 좀 많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부가 지난 12월 19일 지시한 서울시내에 한한 간이 도계장 설치만으로는 오히려 서울시의 도계처리 능력 부족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수없게 되었다.

둘째. 일반 도계장을 시설하려는 업자에게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도계장 자체만으로는 수익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의 지원등으로 일반 도계장 신설을 적극 유도하여야 되겠다.

셋째. 76년 실패이유중 가장큰 원인이 소비자의 인식 부족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생산자 단체나 가금처리 단체에서도 계속적인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특히 서울시 당국도 가정주부들이 주로 참여하는 반상회등을 통한 소비자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때 바다를 만들고 그후에 물고기를 만드셨으며, 우리도 도계장을 먼저 만들고 도계유통을 실시 하는것이 순리이며, 도계유통을 강행하면 필요에

의해서 도계장은 생긴다는 생각을 만일 한다면 이는 물고기를 먼저 만들고 바다를 다음에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축진에서 표준축사 설계완성

축산 진흥회는(기술 지원 사업단)일반 양축가들이 축사를 건설할때의 여러가지 번잡스러운 절차를 간소화 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표준축사를 설계하여 건설부의 승인

절차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준 축사에 대한것은 서울시에서도 기왕에 실시하여 왔었으나, 서울시내 가축사육지역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당시 건설부의 인정을 받지 못해 크게 이용 되지는 못하여 왔다.

양축가들이 새로이 축사를 신축하려면 현재로는 공사비의 4%내외의 설계비를 지출하거나 또는 최저 염가로 하더라도 평당 5천여원의 설계비가 필요하게되어 건축비중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사에 따라서는 30%에 까지 이르고 있어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다.



다행이 이번 축산진흥회에서 표준축사를 설계하므로써, 이중 양축가가 신축하려는 축사와 가장 흡사한 모형을 선정하여 그 사본으로 설계도를 대신함으로써 일반양축가는 시간이나 경비 절차에서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것은 표준설계도가 너무 이상론에 치우쳐 우리의 현실과 잘 맞지 않을때 일반 양축가가 이용할수 없게 되어 당초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며 현재 양계분야는 비닐하우스 부터 각종 간이계사와 완전 자동화된 무창계사에 이르기까지 있어 표준설계도도 이런 현실에 맞게 계사의 크기나, 구조등을 다양화 하여 일반 양축가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가 나오기를 양축가는 고대하고 있다.

제1회 국제 농기구 전시회 개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3월 31일부터 25일간 농기구 전반에 걸친 국제 전시회가 개최된다.

양계분야의 경우 세계가금학회에서 4년에 한번씩 학술 발표회를 겸하여 양계분야 전반에 걸친 전시회를 갖고 있어, 78년 부라질 대회에는 국내에서 많은 관계인사들이 직접 참관하고 온바도 있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봄가을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양계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5년전 전시회를 갖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여러 형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축산진흥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축산진흥대회(79년 예외)도 가축 품평회가 위주이며 기타 관련산업의 전시회가 없어서 양축가들이 아쉬워 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번 농기구 전시회는 양계분야만의 전시회는 아니라도 축산분야도 여러종류의 기계 기구가 출품되어 일반양축가에게 도움을 주려하고 있다.

이번 제1회 국제 농업기계 전시회는 농수산부 주관 한국 농기구 공업협동조합 주최, 외무 상공부와 농협 중앙회 무역진흥공사 한국기계공업 진흥회 경향신문 MBC의 후원으로 여의도에 있는 한국 기계공업 진흥회 전시관에서 3.31 부터 4월 4일까지 개최되며 4월 5일부터 26일까지는 수원 전주 김해에서 연시도 한다.

출품대상은 수도(水稻)田作 원에 축산용등 각종 국내외 농업기계기구 및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및 가공용 기계기구와 농업용 펌프등이 전시된다.

전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관하며 직접 출품업체 실무담당자와 상담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축산 분야는 국내 오진 축산이 자동급이기 외 7종 10점을 수입 전시하며 그의 독일등 외국에서 양계 낙농 양돈을 비롯한 축산기구

53점이 전시되고 국내 협신공사에서도 10점이 출품된다.

한편 주최 측에서도 직접 축산기구를 수입하여 전시할 예정으로 있다.

참고로 출품 내역을 보면 위와 같다.

장소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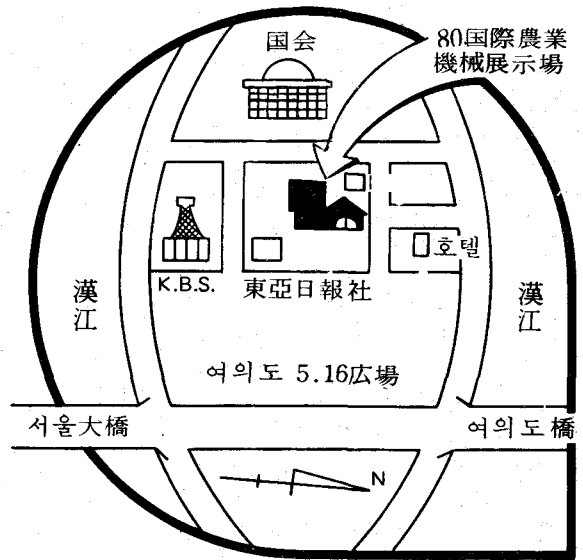


표 전시예정인 축산기구 출품내역

구 분	업 체 수		Booth
	참가업체	제조업체	
국 내	17	17	71
국 외	보세품	20	22
	수입품	7	14
	소 계	26	36
합 계	43	53	163



80년대의 양계산업발전

79년의 흑심한 불경기 이후 우리업계에 다음 2가지의 큰 의견이 활발히 교환되고 있다.

하나는 축산업도 농업인 만큼 일반농지소유에 상한선을 둔것같이 상한선 또는 쿼터제 등록제를 두어 도시자본이 침투하여 대규모화 함으로써 농가 부업 축산이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조절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또하나는 축산업을 농가부업 형태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 축산물이 국민 식생활의 주요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업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부업보다는 기업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2가지 외에 조금씩 다른 의견도 있겠으나 크게 나누어 대략 위와 같이 나눌수 있겠다.

우리나라 축산이 앞으로 발전되어 나아갈 길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공청회 또는 다른 어느 형태이든 우리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더 늦기전에 정책에 반영함



으로써 일반 양축가에 사업의 지표를 세울수 있게 함으로써 낭비와 비능률을 막고 안정되고 내실을 기하는 축산업체로의 발전이 앞당겨 질것이다.